

2001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施設管理公團

日 時 2001年12月1日(土) 13時19分

場 所 施設管理公團 會議室

(13時19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그 동안 차가운 날씨와 제한된 짧은 일정 속에서도 19만 종로구민의 대변자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誠泰 施設管理公團 理事長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우리 구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공단의 1년의 모든 사업들이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당연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과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한 경영에 있어서 불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은 없었는지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잡아 시정토록 해주고 아울러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올바른 경영을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공단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이 모색되는 자리임을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마무리함으로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金誠泰 施設管理公團 理事長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金誠泰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委員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理事長 金誠泰**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年 12月 1日

施設管理公團

理 事 長 金誠泰

理 事 禹濟權

○**委員長 李憲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金誠泰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金誠泰** 평소 우리 공단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 **洪起瑞 幹事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金誠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서도 특별히 공사다망하신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저희 공단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저희 공단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禹濟權 常任理事를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李木熙**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관을 운영 총괄하는 **李重燮** 사업1팀장입니다.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柳貞先** 사업2팀장입니다.

다음은 동부여성문화센터, 명륜 청소년문화센터, 삼정테니스장, 공원시설물 등을 총괄하는 사업3팀 **全鎔集**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공단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 主要業務 推進實績 및 2002年度 主要業務推進計劃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마지막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맑은 바 소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01년도 마무리는 물론 2002 사업년도에도 더욱더 고도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誠泰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 委員! 질의하십시오.

○**宣相善委員** **宣相善** 委員입니다. 먼저 **金誠泰 施設管理公團 理事長**님과 전 직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사장께서는 구민회관에 계시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확실히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宣相善委員** 지금 당장에 남자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소변기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가보세요. 이것 하나만 봐도 평소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의 개선과 구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

기 위한 취지로 '97년 11월 1일자로 관련조례 제정했죠?

○理事長 金誠泰 예.

○宣相善委員 그 후 '98년 1월 1일자로 공단이 탄생되었죠? 맞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1월 7일자입니다.

○宣相善委員 1일 1일자가 아니고 1월 7일자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宣相善委員 현재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명인 걸로 알았는데 99명이네요?

○理事長 金誠泰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91명입니다.

○宣相善委員 년예산이 얼마입니까? 58억 6,400만으로 알고 있는데

○理事長 金誠泰 59억 2,400만원입니다.

○宣相善委員 여하튼 데이터가 조금씩 틀려요, 자료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8억 6,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공단의 연간 흑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보고에는 당기수익이 5억여 원으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그것은 결산시에 5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7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약 13억 정도 흑자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연말 결산을 할 당시에 각종 충당금을 일시에 다 지출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이 적립이 되어서 남아 있기 때문에

○宣相善委員 본 위원도 상당히 혼동스러운 것이 당기수익이나 전체적인 결산을 맞추고 나서 수익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理事長 金誠泰 지금 예정으로는 7억 5,000만원이 거의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국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단이나 공사의 상당수가 방만한 경영과 전문성 부족으로 적자

운영을 하는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이를 정리하고자도 하는데 임직원 문제 등으로 해서 현재 어렵다고도 하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저희 각 지방공단 이사장급 교육이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우리 구 관리공단도 지금 흑자기조라고 하지만 감가상각비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손익계산을 한다면 꼭 흑자라고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도입하게 되면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적자입니다.

○宣相善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최초 관리공단의 운영 프로그램과 유사한 민간시설이 인근에도 한두 개 생긴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지금 여러 개 생기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개인 시설과 시설 면에서 거의 대등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공기업으로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입니다. 여러 군데 민간기업에서는 저희가 놀랄 만큼 엄청난 게 친절하고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사실상 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서는 팔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직원의 친절도도 많이 향상되었고 그렇지만 아직도 개인기업에 비하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宣相善委員 그것을 이사장께서 알고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이나 또 그러한 답변 중에서 민간시설이 생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理事長 金誠泰 느끼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경영 혁신을 통한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변 여타 민간시설과의 경쟁관계 및 장기적인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추어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개 보수 계획 또는 민간시설과 경쟁력있는 프로그램과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신규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며 사기업 경영시스템 도입, 전문 인력 배치 등 종합적이고 치밀한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金誠泰 理事長**께서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金誠泰** 理事長 金誠泰입니다. 宣相善委員께서 아주 저희의 가장 아픈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상 공기업이 지금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저희 공단 역시도 그런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노력해야 되고 그에 따른 투자와 또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시설 개보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를 들면 구민생활관의 경우 수익수를 해수풀로 바꿨습니다. 해수풀은 사실상 공단이나 공사급에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할 정도로 앞서 시행을 했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습니까마는 에너지관리사업이라는 에스 코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금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을 상환하는데 저희가 절감한 만큼만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이 안되면 상환을 안 해줍니다. 그런 남보다 앞서는 에너지 절감사업을 시행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 못했습니다마는 고객감동 경영이라는 경영기법이 바로 고객 스스로가 저희가 더이상 친절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저희 자체를 개선을 하고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프로그램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각 팀별 프로그램개발추진위원회도 저희가 3개 팀인데 3개 팀을 다 합쳐서 전체적인 총괄 프로그램개발위원회를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

다.

○**宣相善委員** 잘 알았구요, 여하튼 해수풀로 바꿨다, 에너지 절감사업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사장님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그러면 내년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경영수지 전망을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금년도 지금 약 7억 5천 정도를 수익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2002년도는 이것보다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는 거기에서 약 10% 정도를 초과 달성할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宣相善委員** 10% 초과 달성이라면 7억 5천 정도가 금년 흑자라고 한다면

○**理事長 金誠泰** 그것보다 한 10% 정도 한 8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이상으로 잡았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宣相善委員** 어떻게 해서 이런 전망이 나올까요?

○**理事長 金誠泰** 그 수치라는 것은 결국 위원님에게 그냥 공수표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글썽, 그와 같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한다니까 상당히 본 위원은 마음이 든든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어려워지면서 내년에도 10% 성장을 한다니까 매우 고무된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주시겠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理事長 金誠泰입니다. 지금 서울시 각 구 산하의 공단이나 공사가 약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개 시설 중에 유독 체육시설 하나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습니다. 타구의 공단, 공사는 주사업이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사업은 굉장히 단순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종로구는 순수하게 체육시설만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이었는데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을 부분적으로 인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공단의 예산 규모도 커지고 또 인력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명실공히 타구의 공단, 공사에 뒤지지 않는 그런 규모의 시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사업이 점차적으로 저희 공단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비전은 아주 밝습니다.

○宣相善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사장께서 타구는 지금 주차장사업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체육시설 또 내년부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를 시켜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宣相善委員 단계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 구 수입인데 시설관리공단이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잖아요?

○理事長 金誠泰 그렇지 않습니다.

○宣相善委員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무슨 특혜라도 있나요? 특별한 게 있어요?

○理事長 金誠泰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사업을 직영 운영하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전부 입찰이죠. 직영을 해서 순수한 우리 구 수입으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죠?

○理事長 金誠泰 앞으로는 저희 공단이 인수를 하게 되면 대행사업을 직영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바뀌나갈 것입니다.

○宣相善委員 예,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북악팔각정 아까 업무보고에 6,883㎡ 약 2,085평이죠. 지하1층에 지상2층 주차장 면적이 2,470㎡ 약 750평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수가 아까 업무보고에는 104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104대 동시 주차가 맞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 하나라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103대로 되어 있어요. 차꾸 자료를 요구하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전부 수치가 틀려요. 주차장 면수는 104대면 104대고 103대면 103대지 왜 이렇습니까? 어제 제가 팩스로 받은 건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고할 때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金誠泰 예,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아까 질의 중에 죄송한데 화장실 가봤어요? 이상 없습니까?

○常任理事 禹濟權 예, 이상 없습니다. 센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宣相善委員 제가 오랫동안 서있을 때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도 센서가 잘못되었으면 빨리 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예, 좋습니다. 거기에 북악팔각정 입찰이 최초로 '99년 3월 1일자 남궁해경 씨가 입찰을 받았죠?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99년 3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한 1년도 채 못되어서 다시 경영자가 바뀌었네요? 입찰자가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理事長 金誠泰 남궁해경 씨가 경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경영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 공단에서는

○宣相善委員 그 원인은 뭐니까? 짧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理事長 金誠泰 경영 부실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사유였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궁해경 씨가 14억 1,100만원에 입찰을 받아서 낙찰되어 가지고 1년간 하다가 거기에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은 황숙자 씨가 경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실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하는 과

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들어서 알았습니까
다마는 그 당시에 내용은 사실은 저희 공단에서는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감사하
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황숙자 이름으로 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확인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저
희 공단에서는 몰랐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궁해경 씨가
1년간 하다가 못하니까 일을 했던 황숙자 씨가 입
찰을 받았는데 14억에서 12억 6,300만원으로 입찰
가격이 대폭 떨어졌네요?

○**理事長 金誠泰** 예.

○**宣相善委員** 그것은 적자 운영이 된다는 그런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정가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년도에 남궁해경 씨가 낙찰받을 당
시에 입찰된 금액이 예가보다 지나치게 높아 가지
고 경영이 안되니까 그 사람은 포기를 했고 그리
고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했든
지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가 예가가 떨어
진 겁니다. 낙찰가가 떨어진 겁니다.

○**宣相善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황숙자 씨는
크게 경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잘하고 있
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 문
제고 지금 얘기는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
는데

○**宣相善委員** 옆으로 들리는 얘기를 못들었나
요?

○**理事長 金誠泰**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宣相善委員** 지금 실제적으로 황숙자 씨도 경영
하지 않고 한식당이나 경양식당이나 이것을 타인
에게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
니까?

○**理事長 金誠泰** 아닙니다. 황숙자 씨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사업자 등록은 황숙자 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면 다른 사람이 사장처
럼 명함도 주고 그런다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

요? 경영상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제가 알기로는 황숙자 씨가 직
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만일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
자 등록을 가진 황숙자 씨가 안하고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해도 경영에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는 거
죠?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理事長 金誠泰**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제재를 가할 수 있죠? 만약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아니라고 하면 제
재를 가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죠. 관리 소홀로, 그렇죠?

○**理事長 金誠泰** 예.

○**宣相善委員** 지금 1휴게소 스넥코너는 정항자
썩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宣相善委員** 이것은 본인이 입찰자입니까? 최
초 입찰자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거기에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
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대충 들은 바
에 의하면 이사장이 혹시 어떤 다른 얘기를 들었
던 것, 경영이 잘된다든지

○**理事長 金誠泰** 그곳은 팔각정 본체에 비해서
경영이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의 수익금은 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또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최초에 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했죠?

○**理事長 金誠泰** 최초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팔각정 본체와 같이 입
찰할 때 합쳐서 입찰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주
차장하고 본체하고 합해서 같이 입찰할 수 있습
니까?

○**理事長 金誠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래요? 처음에 입찰공고를 할

때 이것을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
죠?

○理事長 金誠泰 예, 일간지에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어디어디 신문에 공고 게재를 했나
요?

○理事長 金誠泰 세계일보에 공고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왜 다른 일간지가 많은데 하필이면
세계일보만 했습니까? 구독률이 떨어지는 세계
일보에 한 이유는 뭐니까? 규정상 일간지 하나
만 하면 됩니까?

○理事長 金誠泰 광고료가 싸고 하나만 하면 됩
니다.

○宣相善委員 그것은 좋은데 왜 세계일보를 선택
했죠?

○理事長 金誠泰 지금 일간지 중에 광고료가 제
일 싼 신문이 문화일보하고 세계일보가 제일 광고
료가 쌉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공고를 낼 때는 다수가 구
독할 수 있는 이런 신문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자로 계약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광역시로 해야 되
죠?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종
로구에 거주하는 자로 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최초 입찰 당시에 종로구에 거
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
어서 감사원으로부터도 지적을 받고 서울시부
터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
공단에서 다시 재입찰을 할 때는 서울시로 확대했
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최초에 입찰할 때는 종로
구에 거주하는 자로 계약을 두고 그 후에 감사원
이나 서울시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광역시로 확대
했다는 거죠? 두번째는 그렇게 확실하게 했습니
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理事長 金誠泰 최초는 종로구청에서 입찰할 당
시에는 종로구로 제한을 했고, 두번째는 첫번째
입찰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번째 입찰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종로구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번째 소위 사업자가 사업
을 못하겠다고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재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과정에 지역 제한이 국가계
약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세번째에, 저희 공단으로서는 두번째입니
다.

○宣相善委員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첫번째는 유찰되었나요?

○理事長 金誠泰 입찰 무효가 되었습니다.

○宣相善委員 두번째는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 종로구로 제한을 했다가 세번째에 다시
입찰했을 때 광역시로 확대해서 했다 이것은 확실
하죠?

○理事長 金誠泰 예.

○宣相善委員 공고는 재무국 재무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공고를 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합니까?

○理事長 金誠泰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령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서울
시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그런 재무회계 법령 규
정을 적용 내지는 원용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
을 못해서 그런데,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적용도
받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왜 최초에 입찰을 하면서
그런 규칙을 어기고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랬어요?

○理事長 金誠泰 그 부분은 저도 여기에 재직하
고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취지로 그런
게 했느냐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宣相善委員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다시 후에 질의
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칩니
다.

○委員長 李憲九 宣相善委員! 수고 많이 하셧습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수고가 많겠습니

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은 앞전에 존경하는 宣相善委員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또 평소에 하는 회의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고 간략간략하게 물으면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또 부득이 설명할 것은 짧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신청한 자료 85쪽에 보면 감가상각 충당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감가상각 충당금 비중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감가상각이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그것은 공기기 비품비의 감가상각 충당금입니다.

○李東奎委員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理事長 金誠泰 예.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理事長 金誠泰 직원 처우개선은 보수의 경우는 행자부에서 정하는 보수기준 인상률에 따라서 보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단이 대동소이 하겠습니까마는 저희만 특별히 더 좋은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다른 공단하고 비슷하게 맞춰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 친절교육은 연 몇 회를 실시합니까?

○理事長 金誠泰 특별로는 월 1회, 전체로는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각 팀별 주관으로 해서 1회씩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모아서는 분기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아까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내

용대로입니까?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아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 그대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李東奎委員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주민이 만족할 만큼의 친절서비스라고 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주민이 만족할 만큼의 친절한 서비스라고 보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현재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宣相善委員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추가진전은 어렵다고 본다 10% 내외로 본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우선은 아까 宣相善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근에 경쟁 사기업체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민생활관도 마찬가지이고 구민회관도 사면초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남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로서는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추가진전은 어렵다고 보는 겁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理事長 金誠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기업의 경우는 요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요금이 사실상 10년 전에 결정된 요금입니다. 1990년도에 결정한 요금을 11년째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하려면 그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李東奎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감사원에서 지난 9월달에 각 구공단 이사장 및 감사 교육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감

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전산장비 운영유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전산은 지금 서버를 종로구청 서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서버는 내년 내지는 후년에 별도 종로구청에서 독립하는 독립서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서버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사실은 손익분기점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독립서버를 구축하기 어렵고 앞으로 주차장이 넘어온다든지 저희 경제규모가 커지면 서버도 구축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아까 이사장께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발표해주신 주요 사업이라든가 업무 보고를 해주실 때 내용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그런 계획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연구, 개발하는 팀을 구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나가주는 방향에 있어서 연구개발팀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공기업은 사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연구개발팀이라는 팀이 없어요. 지금 대기업들도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연구·개발팀을 구성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거기서 연구,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프로그램에서부터 전산장비, 기타 주민의 서비스 품질강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어떤 연구개발팀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만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경영합리화 계획을 갖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연구개발팀 없이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안 짜여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지금 명칭은 저희가 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획팀은 말 그대로 기획이 연구 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 총무, 인사, 감사, 재무, 경영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 까지도 기획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팀에서 연구까지도 더불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답변하신 것에 의해서 지금 보면 직원 친절교육이 총괄적으로 보면 분기별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구민들이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접수된 민원만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를 하시면서 서비스까지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마는 최소한 기획팀에서부터 모든 서비스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 자체는 어떤 공무원들 하고는 자세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타구에 비해서 친절서비스가 뒤떨어진 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종로구가 서비스 중에서 8번째 정도 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그것은 상당히 질이 저질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대충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구체적으로 꼬집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자기 회원권을 끊고 시간이 다 되어 다른 회원권을 끊어서 또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홍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분들 얘기로는 날짜를 막아왔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입하시오' 라고 막아왔다는데 바쁜 와중에 깜박하고 하루라도 늦으면 어려움을 겪고, 가서 사정하면 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

는 문제가 각 분야마다 그렇습니다. 헬스, 수영 기타 다른 스포츠가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자기가 운동을 하다가 못하니까 불편하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웃으면서 얘기해줄 수 있는데 또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그런 민원이 4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4가지 민원 중 하나가 헬스장 민원입니다. 지금 헬스장비 구입내역을 보니까 얼마큼이나 한심스럽냐 하면 아까 宣相善委員님도 지적하셨는데 자료를 하나 가져와도 숫자도 틀리고 이것이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최소한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일정시대 겁니까? 아니면 급년도 겁니까? 작년도 겁니까? 연도 표시도 안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사장님! 연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최소한 구입년도는 표시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수감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것 언제 겁니까?

○理事長 金誠泰 2001년도 겁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2001년도라고 기재를 해야지 이해가 쉽죠. 좋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여러분께서 장비를 구입하신 현황이 서너 가지만 와 있는데 최초로 시설관리공단 최초 출발 당시에 헬스장에서 헬스장비를 구입했던 현황은 없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상황입니다.

○李東奎委員 넘겨준 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자료는 왜 빼냈습니까? 이것

보세요.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뭇하는 겁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서야 갖다주고

○理事長 金誠泰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부여성문화센터 헬스장비하고 구민회관 헬스장비하고 보니까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이게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理事長 金誠泰 내구성도 약하고 질도 많이 떨어집니다.

○李東奎委員 이 정도 되면 동부여성문화센터 것은 등급이 얼마나 됩니까?

○理事長 金誠泰 C등급 정도 됩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구민회관 것은

○理事長 金誠泰 A에서 B정도 수준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민원인들 얘기는 장비노후화로 인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여러분이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고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감가상각에서부터 모든 것을 충당해놓고 볼 때 지금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죠?

○理事長 金誠泰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명륜청소년문화센터도 같이 하고 있죠?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이것 하나를 들출 수가 없어서 두개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초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갈 때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보면 동부여성문화센터를 주먹구구식으로 지어놓고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해보니까 흑자가 어렵죠?

○理事長 金誠泰 흑자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기본 요금 자체가

○李東奎委員 어렵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동등하게 봤을 때 흑자 나기는 어렵다고 보시죠?

○理事長 金誠泰 흑자는 불가능합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감가상각이 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효도 못 거두고 다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만들어줬다는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어떠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인수하겠다는 시점에서는 공기업이 경영상 흑자를 내야 된다는 개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얘깁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통령께서 공기업이 경영흑자를 내지 못하면 공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적자를 보면 민영화를 하든가 아니면 공기업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학문적인 개념은 공기업은 경영흑자를 내서는 안된다, 공기업은 경영은 또이또이를 만들어야 되고 흑자도 적자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게 공기업의 기본 목적이고 학문상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공기업은 이익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로구청에서 처음에 인수하려고 할 시점에는 공기업은 적자를 봐도 관계없었기 때문에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그것은 잘못 인수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똑같은 종류의 사업장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인수하라고 의견타진이 오면 저희는 거부할 겁니다.

○李東奎委員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소한 이런 사업체를 인수받고 하는 과정 정도 되면 의회의 승인도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동부여성문화센터다, 청소년문화센터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

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해줬던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왔을 때 이것은 의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풍토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되면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도 거치고 토론을 충분히 해서 경영합리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것을 받아가라고 최초에 얘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누가 받아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사로 종로구청에서 저희에게 이것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희는 문서로 받을 의사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문서로 온 것이 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을 끝나고 갖다 주시고

○理事長 金誠泰 예,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여러분들께서 문서로 보낸 내용하고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가 한오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입찰을 종로로 제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조학래 이사장 계실 때도 팔각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응찰만 종로 사람들이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증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감사가 끝났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공단에서 한 것도 아니고 녹지과에서 했던 겁니다.

○理事長 金誠泰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했습니다.

○朴鍾植委員 지금 구민회관하고 구민생활관에서 돈을 벌어서 팔각정에서 다 까먹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공원시설로서는 마로니에에 있는 매점만 흑자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입찰이라는 것은 지역신문에 공고한 게 아니잖아요. 일간신문에 하되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은 다 응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고 그리고 지금 구민생활관하고 구민회관 수영장, 헬스장 회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理事長 金誠泰 헬스장은 지금 구민회관의 경우는 850명이 넘고 구민생활관은 650명 가깝습니다.

○朴鍾植委員 1,50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수영장의 경우는 엄청 많잖아요?

○理事長 金誠泰 구민생활관이 3,000명, 구민회관이 2,500명 정도 됩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회원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달 나오다가 안 나오고 또 새로운 회원이 오고 이렇게 바뀌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理事長 金誠泰 종목에 따라 다른데 포괄적으로 10% 내외입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대개 예약을 회원들이 한 달로 받습니까? 석 달로 받습니까? 1년으로 받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그것은 본인이 1년을 계약할 수도 있고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매달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금납부 받는 방법이 자동납부를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런데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통장을 pingk했다 그러면 자금이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됩니다. 본인이 자기통장에 돈을 안 넣어놓으면 또 매월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동이체를 통해서 계속 회원자격유지 의사를 그것으로 가부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80% 이상은 자동납부로 자동충당이 됩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한 달 회비가 구민생활관하고 같아요?

○理事長 金誠泰 종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수영은 3만 7,800원, 헬스는 3만 8,500원입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새로운 회원이 왔을 때는

입회비 1만원을 받죠?

○理事長 金誠泰 예, 연회비

○朴鍾植委員 연회비라고도 하고 입회비라고도 하는데 한 5,500명되는 데서 매월 회원 교체가 1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회비 1만원은 500명분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500명이 들어오면 500명이 나가잖아요. 나가는 회원들한테 입회비를 내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理事長 金誠泰 환불됩니다.

○朴鍾植委員 나간 회원들 500명에게 1만원씩 다 환불이 되고 있나요?

○理事長 金誠泰 아니요. 그것은 12달로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이 1월에 가입했는데 6월까지 하고 7월달에 그만두게 되면 1만원의 절반인 5,000원만 돌려주게 되는 월할로 계산합니다.

○朴鍾植委員 6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1만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5,000원만 환불해준다 이것이죠? 그러면 환불해준 회원들의 명단이 다 있잖아요?

○理事長 金誠泰 예,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理事長 金誠泰 엄청나게 많습니다.

○朴鍾植委員 많아도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구민생활관, 구민회관에

○施設管理公園 理事長 金誠泰 잠깐만요.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朴鍾植委員 지금은 의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뭐야지 개인정보든 뭐든 안주면 안되죠. 왜 그러냐 구민회관이고 구민생활관에 접해 있는 위원인데 갈 때는 연회비라고 1만원을 받는데 나갈 때는 한 사람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몇 사람이 애길 했어요.

○理事長 金誠泰 알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면 거기에 의아심을 가진 회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의 의아심도 풀어줄 수가 있고 하니까 반환 받아간 사람들의 자료를 지금 당장 어려우면 월요

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理事長 金誠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이 무지 많습니다.

○朴鍾植委員 양이 많아야 자동차로 하나가 되지는 않겠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理事長 金誠泰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鍾植委員 월요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理事長 金誠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朴鍾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朴鍾植委員질 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불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환불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理事長 金誠泰 통장이체를 합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통장이체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理事長 金誠泰 면제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면제를 하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환불을 하게되면 연회비를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1,000원꼴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11달을 다내고 1달분을 자동이체를 하게되면 몇 백원 안될 텐데

○理事長 金誠泰 월할로 계산을 해서 12달로 나눠서 나머지 금액은

○洪起瑞委員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자동이체를 할 때 수수료를 낸다고 그러면 이게 원금보다도 수수료가 더 비싸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다행스럽게 수수료를 면제를 해줍니까?

○理事長 金誠泰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 상업은행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그것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면제가 안되

고 이것을 수수료를 낸다고 했을 때는 원금보다도 수수료가 더 많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면제를 해준다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요사업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구민생활관에서는 수익이 22억 8,226만 6,000원이 나오죠? 구민회관에서는 18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설 면이나 모든 것이 구민회관이 구민생활관보다도 나올 텐데 왜 이곳은 수익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理事長 金誠泰 시설의 규모가 구민회관하고 구민생활관하고 4대 5 정도로 구민생활관이 큼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이쪽에 보면 면도 그렇던데 수영장 면도

○理事長 金誠泰 위원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면적은 구민회관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는 비수익 면적이 많습니다. 구민회관의 대강당하고 지금 위원님이 앉아계신 대회의실은 전혀 수익성이 없는 시설입니다.

○洪起瑞委員 대강당이 왜 수익성이 없어요? 대관료를 안 받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그것은 원가가 안됩니다. 거기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더 많이 밀집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지금 수영장도 아까 저쪽에는 3천 몇 백명이며 이쪽에는 2천 몇 백명이 된다는데 이 차이는 뭐예요?

○理事長 金誠泰 수영장도 면적이 ⅔밖에 안됩니다. 구민회관의 수영장 전체 면적이 ⅔밖에 안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도 구민회관 쪽이 생활관보다 좀 열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인근에 있는 이용주민도 숫자가 구민생활관 쪽이 역사도 있고 그쪽이 숫자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그 숫자가 높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 홍보 부족이 아니냐, 그만큼 노력 부족이 아니냐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민생활관은 지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 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그쪽 삼선교 쪽이나 한진수영장이 들어와 가지고 성북

구에서 들어오는 회원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은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설 면으로 보나 뭘로 봤을 때 월등하게 앞서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수익이 적은 것은 여기가 그만큼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주요사업 시설에 보면 수영장도 똑같은 25m 6레인이고 15m 2레인이 똑같은데 뭐가 적어요?

○**理事長 金誠泰** 전체 면적이 적습니다. 레인간의 넓이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구민생활관보다 축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은 인원이 한계가 차서 그만큼 인원을 적게 받느냐 아니면 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원이 덜 차서 적게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의 한계가 다 인원이 찼다는 얘기죠?

○**理事長 金誠泰** 아닙니다. 구민회관도 구민생활관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새벽 타임은 워낙 다 찼고 낮시간대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많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룰이 구민회관이 더 많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도 일부는 저도 동감합니다.

○**洪起瑞委員** 낮시간대에는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많습시다. 왜냐하면 여기는 평화시장과 여러 시장들이 많습시다. 시장 상인들은 야간에 장사를 하고 주간에는 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가 선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주간에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민생활관 쪽에는 전부다 주부들이기 때문에 낮시간과 밤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황금시간대 그런 시간의 편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파고들어서 회원들을 유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평화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분들은 점질방 같은 데를 가서 낮에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수영과 더불어서 주부들이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인력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구민회관 쪽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다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열악한 시설보다는 인원이 뒤져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理事長 金誠泰**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 8명의 직원이 결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 보충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원이 되었을 때는 보충을 하게 되면 공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理事長 金誠泰** 공개채용 시험을 봅니다.

○**洪起瑞委員** 공개채용을 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을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회에서 공채 모든 것을 심사를 하죠?

○**理事長 金誠泰**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理事長 金誠泰**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사가 위원장이고 각 팀장이 위원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내부인으로만 보충이 되어 있네요?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은 외부의 신빙성을, 물론 내부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인사위원회라면 외부에서 한 명 정도라도 들어가야 그것이 공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사장 생각은 어떠신지?

○**理事長 金誠泰** 저희가 이용하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내부규정상 신규채용자밖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채용을 저희가 공채로 두번을 해왔습니다. 신문 공고 및 인터넷 공고까지 해서 내년 봄에 공채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외부 인사위원 영입문제는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래도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모든 것을 보더라도 물론 내부에서도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적합하게 잘하겠지만 그래도 외부의 한 분

정도라도 영입해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고 봐진다는 애깁니다.

○**理事長 金誠泰** 아직까지는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朴鍾植委員**께서 마로니에공원 매장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거기에 동의를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로니에공원에도 최초로 입찰할 때는 2억 5,501만원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시 재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억 50만원에 입찰했는데 도대체 처음에 입찰해 가지고 조금 하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재입찰할 때는 엄청나게 하향을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애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자기들끼리 야합을 해가지고 이러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사업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담합을 했든지 결탁을 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입찰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팔각정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마로니에공원도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입찰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입찰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냥 신문에 조그맣게 내버리면 누가 입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애깁니다. 입찰이 있을 때 반상회 보라든지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집행기관을 통해서 한다면 이런 야합된 입찰은 없을 거라는 애깁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마로니에공원에 들어올 때도 1억 5천 정도 입찰했을 때는 자기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보다 보니까 자기 수익이

적으니까 슬그머니 도중하차를 하고 몇 사람 앞세워 가지고 할 때는 반 정도도 안되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응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理事長 金誠泰**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자꾸 비밀비재하기 때문에 최근의 경우는 모든 입찰을 신문 공고 외에 인터넷에 띄웁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각 동사무소에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신문에 백 번 내는 것보다 인터넷에 한번 띄우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띄우는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洪起瑞委員** 마로니에공원 재입찰할 때도 인터넷에 띄웠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띄웠어요.

○**洪起瑞委員**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초창기에도 마로니에공원에 들어갔던 저희 지역 사람들도 한 명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1억 3,500을 썼는데 1억 5천짜리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억 3,500을 쓸 정도면 자기가 이것을 알았다면 1억 5천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1억 5천이나 1억 3천에 응찰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 부족으로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이 되어 가지고 특히 중도포기하고 재입찰을 할 때는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폐단이 생기지 말아야 돼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엄정을 기해 가지고 잘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누가 와서 보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도 아니고 팔각정에 이런 사례 발생했죠, 마로니에에서 발생했죠, 앞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이런 분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議席에서 - 지금 **洪** 委員께서 지적을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마로니에공원 처음 입찰할 때 2억 5천 넣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도 세 사람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찰

해서 장사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업주는 안 바뀌었어요. 업주가 안 바뀐 상태에서 3년 기한 전에 어떤 방법으로 반값이 안 되는 가격으로 재입찰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법령 위반이에요. 업주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2억 5,900 얼마에 3년 값을 한꺼번에 주고 월세가 아니고 3년 값을 다 주고 장사한 거예요. 장사하다가 영업을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영업할 사람을 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1억 5천에 되었는데 업주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2억 5천짜리가 1억 5천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법령 위반이고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업주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안되지 않아요?)

○**委員長 李憲九**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朴鍾植委員 議席**에서 - 이것은 고발대상이 돼요. 웃지 마세요. 업주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장난을 쳤느냐는 거예요.)

○**委員長 李憲九** 朴 委員長님! 잠깐 계세요. 이 사장님! 답변하세요.

○**理事長 金誠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朴鍾植委員님께서도 종전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사업하는 사업주는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의 상으로는, 명의는 바뀌었습니다. 명의는 바뀌었는데 최초 사업자와 나중 사업자가 내외 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입찰을 했다가 남편이 포기를 하고 부인 이름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부부관계라고 해서 '네 신랑이 했는데 마누라는 자격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朴 委員長님께서

혹시 공단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입찰과정에서 의혹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뱀새는 남니다. 뱀새는 나는 것이 아까 朴 委員長님 말씀에 2억 5천인 응찰자가 2억 5천에 가까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포기했으면 그러면 우리 구청의 누구든지 우리 구의 수익을 봐서라도 다음 두번째 응찰자 그 사람한테 해보겠느냐고 한번쯤 물어봤느냐는 얘기예요.

○**理事長 金誠泰** 낙찰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찰을 종전과 똑같이 할는지 종전보다 낮게 할는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러면 그 부인을 시켜서 하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그 앞전에 입찰 신청했던 사람들을 다시 연락해서 하계끔 해야 옳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理事長 金誠泰**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지행위를 통해서 입찰 대상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당신이 종전 입찰에 참여했으니까 당신이 입찰에 참여하라'고 저희가 별도 연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기록에 남겼으니까,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洪起瑞委員**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불특정 다수니까 통보를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팔각정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전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도 보면 이것이 이사회 회의록에 나온 겁니다. 회의록을 훑어보다가 발견했는데 회의록에 보면 최초 입찰자는 강동구 명일동 369-1 삼익아파트 유병철이 했어요. 이것도 369-1 삼익아파트 그러면 주소가 똑같고 부인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왔을 때도 이 사람

들한테 또 다시 우리가 응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理事長 金誠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특정 개인의 부인이라고 해서 자격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감각상으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감정은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여기 입찰할 때 몇 사람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 등록한 사람은 10여 명 되고 실제 입찰장에 와서 투찰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10명 된 것은 전부다 매수를 했구만. 이수권이라는 사람이 10명한테 떡값을 주고 매수하고 둘만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입찰 감독하는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괜히 아무런 것이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理事長 金誠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과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투찰 대상자를 감시하고 권고를 하고 하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기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겁니다. 의심만 가지고 수사의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분하고 억울하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洪起瑞委員** 아니죠. 그것은 수사의뢰를 해야죠. 왜 당연히 수사의뢰를 해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흥기서가 이것을 하다가 우리 부인한테 해서 입찰을 했는데 더군다나 10여 명 했다가 입찰

장에는 2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사의뢰를 해야죠. 조사를 해달라고 해야죠. 야합을 한 것이니까 의뢰를 해야죠.

○**理事長 金誠泰** 앞으로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고객 의견 접수채널 마련 해가지고 모니터링 운영 해서 60건 의견 중 49건 해결, 처리 중 2건, 불가 9건이라고 했는데 9건 중에 처리를 못해줄 만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틀버스를 새로이 투입해달라 그러면 지금 서틀버스 하나 운행하는 데 대략 연간 3천에서 4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직접적인 계획상으로는 서틀버스를 더 증차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또 요금조정 문제 같은 겁니다. 지금 헬스장을 3만 8,500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더 싸게 하니까 3만 8,500원을 3만원으로 내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는 3만원 받고 있는 데도 있고 5만원 받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5만원 받지 말라는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洪起瑞委員** 그러면 우리가 서틀버스 운행을 몇 개 노선을 운행합니까?

○**理事長 金誠泰** 서틀버스를 지금 구민회관에 2대, 구민생활관에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다 수용하려고 하면 구민회관에 4대, 구민생활관에 6대 정도는 운행해야 민원이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洪起瑞委員** 민원을 해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서틀버스 1대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금이 얼마만큼 오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민원 해결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익이 2,000만원 나온단지 1,200만원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은 투자를 해야

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지 민원 해결 들어온 것이 전체적으로 100%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서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4대를 투입하게 되면 현재 들어오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4대를 운행해 가지고 1억 2천이고 1억 3천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산 투자를 해야지 지금 경쟁적 사회예요. 그러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옛날처럼 수영장 하나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려고 새벽부터 가서 잠 안 자고 진을 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구민생활관을 인계했을 때만 해도 수영장 하나 끊으려고 밤에 모포자락 깔고 거기서 밤을 세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 투자라든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理事長 金誠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시설 장비에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이 현재 저희 시설로서는 하향 곡선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토요일휴무제가 시작된다고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전 사업장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국민의 의식이 건강 쪽, 레저 쪽으로 좀 생각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동료위원인 宣相善委員께서 아까 질의하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인계를 맡겼다는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인계를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이유가 뭐니까?

○**理事長 金誠泰** 저희가 종로구청으로부터 주차장 관리업무를 인수받고자 하는 의사는 발족 당시

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무선에서부터 사실상 거부 당했고 윗분까지는 의사 전달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청장님까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업무 성격상 그것이 공단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뜻을 청장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밑에 실무진에서 뜻을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비상임이사는 행정관리국장 겸 건설교통국장, 감사담당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얘기할 때 그런 것이 한번도 거론이 안되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사회에서 최소한도 한번 정도 상정했으면 윗분에게 충분히 전달되죠. 그리고 아까도 공익사업을 하는 데도 이윤을 못 내면 이제는 없어져라 하는 대통령 말씀도 있었다고 하듯이 지금 현재 인사동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을 떠맡았잖아요? 그렇게까지 떠맡아서 오히려 집행부 일을 해주면 수익이 나는 것을 당연히 가져와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비수익이 나는 것은 덤석 안겨주고 수익 나는 것은 힘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으로밖에 더 비칩니까? 그리고 또 이사들이 분명히 조직의 핵심인 국장들이 와있고 감사담당관도 있는데 충분히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금 이것도 우리가 무슨 어떤 냄새를 못 맡아서 그렇지 공영주차장도 이 사람들이 안 내놓으려고 하려는 것이 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죠. 안 넘겨주고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理事長 金誠泰** 구청에서는 넘겨주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은 어떤 계획을 우리한테 주고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오늘 감사장에 와서 그런 사실을 알았지 언제 한번 우리 의회 쪽에 그런 건의 사항이라도 내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나 구청에라도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의회 쪽으로도 문건을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理事長 金誠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장장 두시간 동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가운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준비했던 것은 동료위원이 다 해버리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반현황 3페이지에 보면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이사회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감사 1명해서 총 5명입니다.

○金正大委員 여기를 보면 이사회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이사회를 내가 묻는 겁니다. 이사회가 있어야 이사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가 몇 명이나고 물었습니다.

○理事長 金誠泰 총 5명입니다.

○金正大委員 5명이면 누구누구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두 명,

○金正大委員 상임이사는 禹濟權씨고 비상임이사는 누구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金正大委員 감사는

○理事長 金誠泰 감사는 監査擔當官 金周會입니다.

○金正大委員 이 다섯 분이 이사회를 운영합니까?

○理事長 金誠泰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공무원들이 세분이고 아까 洪起瑞委員이 말씀하신 회의자료가 무엇입니까? 다섯 분이 회의한 회의록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회의록을 다 볼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정원을 어디서 정한 것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金正大委員 승인을 받는데 99명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연초에 정해집니까? 105명이 필요하다 99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정해야 될 텐데 구청장이 정한다고요?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구청장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金正大委員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99명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2001년도 희망정원이죠?

○理事長 金誠泰 승인정원입니다.

○金正大委員 희망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金正大委員 그런데 9명이 결원된 것은 무슨 사유로 그렇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2명은 저희가 확보를 안했었고

○金正大委員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구청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2명 중에 1명은 전산직, 1명은 일반직인데 그렇게 2명은 저희가 채용을 안했고 나머지 97명을 유지했었는데 연말 가까이 되면서 5명이 퇴직했습니다.

○金正大委員 2001년도 희망정원이 99명으로 승인받았는데 5명은

○理事長 金誠泰 그러니까 2명은 채용을 안했으니까 총 97명이죠. 현원이,

○金正大委員 그런데 왜 99명을 승인받았어요? 안 쓴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理事長 金誠泰 저희 필요 정원입니다.

○金正大委員 좋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시설관리공단 주 수입원이 주차장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구는 운동하는 사람들, 복리증진 대역에 참여하는 분들을 수입원으로 하여 순전히 체육 쪽에서 잡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조금 아이러니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에 투자한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자되었는데 자꾸 수익을 냈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종로구청 공무원이 아니죠?

○**理事長 金誠泰**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종로구청을 대리한 하나의 사업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복리증진 쪽에서 정부에서도 대통령 말씀 운운하시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공기업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그런 쪽이지 얼토당토않게 대통령 말씀을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다 인용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안하고는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말씀을 앞으로는 인용하십시오.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표현을 앞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理事長 金誠泰** 그 부분은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9월달에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감사교육원에 가서 지방공기업 대표자 교육을 받는데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저희한테 적용되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어쨌든 자치구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이고 대통령 말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시성 비슷하게, 감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자치구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있는 것이지 수익을 안내더라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받아라 이사회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래도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말 따라갈 필요 있어요?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큰 공기업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2001년도 목표 59억이라는 것은 전부 체육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에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죠?

○**理事長 金誠泰**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다른 구에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주차장 같은 것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거양을 하겠다는 말씀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쪽에서 90여 명이 인건비를 다 받아가고도 10억씩, 7억씩 수익이 났다고 그랬는데 인건비 주고 경상비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수익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理事長 金誠泰** 예.

○**金正大委員**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수익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라고 말하면 시설 투자한 런닝머신 같은 것 700만원, 400만원씩 구입한 것을 빼고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집어넣고 나서입니다.

○**金正大委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업을 주차장 쪽으로 욕심을 내서 하게 되면 공단이 사장 명의로 입찰을 합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입찰도 필요없이 너희가 해라 그러면 하는 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얼마씩, 그런데 그것을 이사장 명의로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가지겠다는 말입니까?

○**理事長 金誠泰** 구청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대행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는 그 업무를 부분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金正大委員** 어떤 공개입찰이 아니고 그냥 인수를 받는다?

○**理事長 金誠泰** 예, 주차장 운영업무를

○**金正大委員** 그러면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 50대 짜리가 1년에 1억이다 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용찰해서 낙찰 받아서 사업을 해야 종로구 수입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이상의 수익을 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봉급이나 관리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용찰식이 아니고 그저 협의해서 갖겠다는 겁니까?

○**理事長 金誠泰**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 대행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는 계속 대행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행계약이 만료되어서 인수한 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주차장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金正大委員** 요금은?

○**理事長 金誠泰** 요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A급지는 얼마, B급지는 얼마 급지별로 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委員長 李憲九** 지금 낙찰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金正大委員**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기이 우리가 종로구에 투자를 많이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작고 크고 간에 만들어진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 가지고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것을 공히 일반인들과 똑같이 공개용찰을 해서 따내서 수익을 내줘야 수익이지 구청장 방침 하에 앞으로는 주지 말고 다 하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누워서 헤엄치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남지, 안 남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그것은 저희 공단의 기본업무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은

○**金正大委員**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대통령 말씀 운운하면서 수익을 내라 해서 앞으로의 비전도 묻고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습니다. 답변의 일관성이 없다, 이것은 종로구민을 위한 구민회관인데 다시 말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시설관리공단 99명의 가족을 위한 구민회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理事長 金誠泰** 물론입니다.

○**金正大委員** 아셨죠? 그래서 너무 영리목적으로 치우치다보면 결국 손해는 여기를 찾아오는 종

로구민들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같은 값이면 시설 좋은 곳으로 가는데 결국은 가격이 좀 싸니까 많이 오겠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수영 같은 것은 얼마씩 받는다고요?

○**理事長 金誠泰** 3만 7,800원

○**金正大委員** 개인은 얼마를 받아요?

○**理事長 金誠泰** 개인의 경우는 8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金正大委員** 엄청 싸네요. 수질도 비슷합니까?

○**理事長 金誠泰** 수질은 오히려 저희가 낮습니다.

○**金正大委員**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金正大委員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설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혜를 줄 수 있어야지 여기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공기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종로구청으로부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수탁관리 운영에 관한 협조의뢰서가 종로구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협조의뢰서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와있네요. 시설관리공단과 구 직영시 장단점을 비교해서 비교표까지 해서 왔습니다. 장점은 뭐라고 해서 왔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유인력 활용(방법원) 지금 여유인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구에서는 인력 하나만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여기는 여유인력이 있네요. 방법원 활용하라고, 그래서 “추가인력채용은 불필요하다”고 나와있어요. 단점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정규직 배치가 어려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경직성으로 운영상 어려움 초래”, 또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상 전문성 결여가 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의견은 뭐라고 왔느냐 하면 “주민대표 등 주민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정규직을 보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강좌를 개발,

보급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수강인원 미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공단에 위탁할 경우 공단 전체의 수입이 종전보다 대폭 증대된다는 면에서 향후 공단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李東奎委員** 이것을 보서 가지고 이렇게까지 보내왔는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렇고 여기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와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안 봤으니 이것을 보시고 나서 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부터 흑자가 날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못했을 것이고

○**理事長 金誠泰** 이것은 적자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정도가 이런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면 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재고의 여지를 가져볼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도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내주신 것은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도 이렇게 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최초의 본질과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여성문화센터 하나 짓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최초의 취지는 동부에 여성문화센터가 없으니 그것을 지어서 우리 지역주민 여성을 위한 방향을 찾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넘어왔어요. 공단 쪽에서는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받은 거죠?

○**理事長 金誠泰** 그렇지 않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理事長 金誠泰** 아까도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부여성복지관하고 명륜청소년회관을 인수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공단에서는 수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원장님이 아

까 충고 말씀해주셨던 수익성 증대를 위한 목적만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무조건 적자를 봅니다. 대개 5억 정도를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같은 5억 적자를 보더라도 구민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데 구청이 더 잘할 것이냐 우리 공단이 더 잘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수하면 실제 구청에서 공무원 마인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2배, 3배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한 결과 현재 구청에서 했던 인원에 적어도 배 이상은 늘어났습니다. 활용인원이,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지금 공단 이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있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기관이니까 자신 있어야 되겠지요.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전문기관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여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향상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이고 제가 묻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이지요. 이렇게 적자되는 것을 만들어놓고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는 것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래놓고 감가상각에 예산지출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최소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도 흑자를 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뭔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구의회나 구청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는 후에 부득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떠맡아야 되겠다라든가 그랬을 때 바로 여러분도 명분이 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공문 하나 왔다고 해서 받았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회의는 하셨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어떻게 회의결론은 나셨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인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구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낫겠다 그런 차원으로 회의하신 겁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좋은 견해를 갖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그것이고 또 하나를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동부여성문화센터와 같은 취지로 보신 것이죠?

○理事長 金誠泰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위원님들 보실 때 어떠세요? 중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긴 했습니까?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청소년 문화센터는 제가 바로 있는 동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할 때는 정말 문을 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한테 낮뜨거운 질책도 받았어요. 13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느냐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아 가지고 독서실도 85명인데 인원이 다 차 가지고 45명을 더 늘렸어요. 이번에 헬스클럽도 운영하는데 150명 정원이 다 차 버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잘 맡았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李東奎委員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동부여성문화센터하고는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보시니까? 많은 차이가 나죠?

○理事長 金誠泰 사실상 저희가 인수하고 여건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 곳이 청소년문화센터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위치는 높은 데 있어도 거기는 주변이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위쪽으로는 쌍용아파트와 연계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개발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인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명륜청소년문화센터는 인수 결정을 하고 가보고는 정말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쪽 다 충분히 성공적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연구개발팀을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

의한 것이 있었죠? 이 부분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기획팀에서 했으면 하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지금 기획팀의 부족인력을 보충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에서 해야 될 것은 저희 전 직원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금년도에 무슨 일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달성 평가를 개개인 다 받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본절차가 업무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의 연구가 부족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력이 좀 달립니다.

○李東奎委員 인력이 달리는 것은 보강하면 될 것이고

○理事長 金誠泰 그 부분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부분을 보강해서 하실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홍보 부족을 빨리 강화해주시고 불친절 문제는 어떻게 하실래요? 흠족하지 않다고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지속적인 교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몹시 불친절해서 개선이 안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요즘 경영마인드하듯이 개인 마인드식으로 스마일하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해주는 것을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개인관리를 해서라도 바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니 불친절하면 뭐라고 욕을 하느냐 하면 “종로구청 개새끼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부 세트로 의회를 막론하고 구청장을 비롯 전 종로구청 직원이 욕을 먹는 민감한 부분이기에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이사장께서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理事長 金誠泰 예.

○李東奎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까 朴鍾植委員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과목별 회비 조정회비가 조금 전에 메모지가 들어왔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수강료 같은 것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비싼 데가 있고 그런 것은 짚어봐 달라고 들어왔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타구와 같거나 저렴합니다.

○李東奎委員 타구와 같다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理事長 金誠泰 같은 수준이 지금 한 두 군데 되고 나머지는 저희보다 물론 비쌉니다.

○李東奎委員 그 자료를 주시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과목별 회비가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연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 불만이 특히 오래 다니시는 회원들께서는 불만이 연회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회비는 아까도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연회비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연회비 관리를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연회비 관리는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렵니까?

○理事長 金誠泰 연회비 문제는 지금 저희도

○李東奎委員 모순된 것은 빨리 버려야죠. 빨리 버리고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理事長 金誠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수익으로 잡고 있는 연회비가 사용되는 게 주가 셔틀버스나 같습니다. 그런데 연회비를 안 받으면 셔틀버스를 치워야 됩니다.

○李東奎委員 연회비를 받아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큼니다.

○理事長 金誠泰 수익성 면이 그렇게 됩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차이가 큰데 연회비 문제가 자꾸 말씀이 생겨 가지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는데 부득이 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지 새로운 방법을 택하든지 새로운 아이টে임을 개발해서라도 연회비 문제만큼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표를 아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연회비

안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 은행 같은 데 잔고통장 돈 안 찾아가듯이 우리 종로구청에서 보더라도 과오납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과오납은 바로 우리 잘못이거든요. 행정관청에서 잘못이거든요. 행정관청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몰라서 못 찾아가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데 이것도 바로 민원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또 이와 같이 연회비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理事長 金誠泰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연구하겠다는 말만하지 마시고 이것은 바로 시정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理事長 金誠泰 지금 시정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연회비 때문에 매우 민원인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향이라도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시정해나갈 의사도 없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불친절 같은 것은 하시겠다고 해놓고 연회비 같은 것은 조정해달라고 하니깐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발전될 소지가 점점 적어진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립니다. 이런 것을 바로 획기적으로 하지 못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金誠泰理事長님의 능력으로 봤는데 이것을 좀 획기적인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이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理事長 金誠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연회비를 없애라는 것을 저한테 들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간단히 하겠습니까. 아까 시간이 오래되어서 질의를 중단했는데 아까 북악팔각정 문제, 여기에 휴게소가 1휴게소하고 2휴게소 두 개가 있죠?

○理事長 金誠泰 예.

○宣相善委員 1휴게소는 스텍코너죠? 하나는 커피전문점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1평에서 정향자가 낙찰을 받은 스텍코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커피숍 '구름속의 산책'

○宣相善委員 그런데 왜 여기에는 스텍으로 되어 있네요? 스텍코너하고 27평에서는 남궁란 씨가 여기가 커피전문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理事長 金誠泰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거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스텍코너가 적고 커피전문점인 '구름속의 산책'이 큼니다.

○宣相善委員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바뀌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인도 안하고 보냈습니까? 분명히 팩스로 받았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주차장 면도 지상 26면, 지하 73면, 대형 4면까지 해서 103대인데 아까 이사장 보고에서는 104대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대가 차이가 나든지 10대가 차이가 나든지 자료가 이렇게 미비하다는 말이에요. 스텍코너 남궁란 씨가 최초 응찰을 본 낙찰자죠?

○理事長 金誠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지금 누가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理事長 金誠泰 저는 모릅니다.

○宣相善委員 몰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강명현 씨라는 사람이 경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은 남궁란 씨가 해놓고 소위 재입대 해줬겠죠. 그렇게 경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주차장도 듣기로는 별도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파악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理事長 金誠泰 예,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하는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나 여타 여러 가지 종목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싸게 받는데 질 좋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혹시 이사장님께서 주변에서 예를 들자면 헬스클럽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항의 같은 것을 한 것은 없었습니까?

○理事長 金誠泰 아직 그런 것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부하고 여성복지관에서는 인근의 목욕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밥 빌어먹게 생겼다고 항의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宣相善委員 본 위원한테 몇 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상 구민회관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저희들은 밥 빌어먹겠다고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헬스클럽도 여기가 시설도 좋고 월회비도 싸고 해서 경영을 못하겠다고 큰일났다고 적자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설득을

○理事長 金誠泰 그것은 저로서는 유구무언입니다.

○宣相善委員 의원이란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참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를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참고를 하지만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의원인데 그래도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의원들을 묶고 그것도 해결 못하느냐 등등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던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의원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항의가 들어오면 또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다라고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앞서 질의하다시피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명실공히 명실상부한 종로구의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거듭 태어날 그런 각오를 가지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理事長 金誠泰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 吳鍾錫 국장이 이사로 있던 자리가 결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理事長 金誠泰 이사는 건설교통국장이 다시 새로운 이사로 되었습니다.

○洪起瑞委員 당연직인가요?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관리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등록회원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트워크 환경정비를 위한 부서간 업무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理事長 金誠泰 이것은 네트워크 환경정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청 서버를 이용해서 구청을 통한 그런 전산으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고객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들어가서 거의 마쳐진 단계입니다. 그러면 고객관리라는 특정분야를 가지고 저희 각 사업장간에 모든 정보가 한 통로로 유통되도록 하는 겁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독자적인 개발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독자적인 개발을 하니까 업자가 선정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하는 업자가 전체적으로 회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없이 전부다 할 수 있는 계획까지 수립을 합니까?

○理事長 金誠泰 프로그램을 조직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洪起瑞委員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회원관리에서부터 전부다 할 것이 아닙니까?

○理事長 金誠泰 우선 회원관리 프로그램만 하는 겁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 가지고 전

부다 입력을 해주느냐 아니면 프로그램만 해주고 자체적으로 맡기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전부다 업체에서 와서 2일 3일 밤을 새워 가면서 업체에서 이식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도 이식을 하느냐 아니면 직원들이 맡아서 하느냐

○理事長 金誠泰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가 등록하러 왔다면 등록입력을 하고 돈 냈다는 입력만 하면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다시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만들어내는데 기술을 가지고 요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입력하는 것이 빠르지 거기에 기술 없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후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理事長 金誠泰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입력을 해야 영수증이 나오고 영수증이 나와야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기본입력을 안 하고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기본입력을 할 것은 당연히 하죠.

○理事長 金誠泰 그것만 입력하면 모든 사항이다 끝나는 겁니다.

○洪起瑞委員 다하는데 이번에 금고도 전산화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끝냈어요. 그동안 연합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고 또 독자 개발한 게 있어요. 하다보면 이식하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그럴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만 해주고 직원들한테 떠넘기면 직원들이 너무 실질적으로 후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하는 업자한테 다 맡겨서 제대로 해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理事長 金誠泰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리비용을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洪起瑞委員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내가 빨리빨리 물을게요. 우리가 다 바깥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팀장들은 일반직 16명에 포함되는 겁니까?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지도직이 30명이나 되는데 지도직은 됩니까?

○理事長 金誠泰 각 분야별 수영이나 헬스 선생

○金正大委員 이분들에게 강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줍니까? 연봉 개념으로 줘요?

○理事長 金誠泰 예, 정규직원입니다.

○金正大委員 각종 종목별 분야에 지도자들?

○理事長 金誠泰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문화프로 그램 종사자들

○金正大委員 밑에 보건소가 있죠? 그런데 간호원 2명은 뭐예요?

○理事長 金誠泰 간호원은 구민회관에 1명, 구민 생활관에 1명

○金正大委員 그 사람들도 연봉을 줘가면서 계속

○理事長 金誠泰 정규직입니다.

○金正大委員 기능직도 30명은 됩니까?

○理事長 金誠泰 안내하고 프로그램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金正大委員 안내도 기능직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행정직은 하나도 없어요?

○理事長 金誠泰 일반직에 들어가죠.

○金正大委員 왜 행정직으로 안 했을까? 왜 일반직이라고 해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金誠泰 理事長님은 정년퇴직 직전에 이리 오셨는데 구청에서 국장 대우하고 여기 이사장 대우하고 연봉 개념에 차이가 갭이 얼마나 됩니까?

○理事長 金誠泰 더 적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래요? 뒤에 팀장들은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갭이 얼마나 됩니까?

○理事長 金誠泰 보수는 저하고 이사의 경우는 연봉 개념으로 따져서 적게는 사오백 많게는 그것보다 더 이사님도 마찬가지로 더 적습니다.

○金正大委員 두 분이 비슷합니까?

○理事長 金誠泰 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金正大委員 자꾸 수익을 7억이다, 많이 냈다고 하길래 지급대장을 보려고 했더니 엉뚱한 것을 자꾸 가져와서 이 정도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 副議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金誠泰 施設管理公團 理事長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5分 會議中止)

(16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본연의 일들을 뒤로 한 채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해주신 金誠泰 理事長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구민회관 등 구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 수익을 극대화함은 물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생활에 편리는 물론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러한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 결과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금년 시설관리공단의 동부여성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 광화문 중앙보도 광고물 관리사업 등 많은 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었음에도 큰 대과 없이 운영하면서 이익을 낸 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 행정관리국 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결산승인 내역을 보면 수입액은 53억 1,2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54%나 증가되었으나 순수익은 13억 4,300만원으로 16.6%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 수입액의 74.7%인 39억 6,900만원이 운영비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나왔고 2001년도 10월 현재 손익현황을 살펴봐도 총수익 49억 914만 4,000원에서 운영비용이 36억 2,100만원으로 총수익 대비 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공직사회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하는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운영비용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비용 절약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같은 형태의 민간시설이 몇 군데 곧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시설만큼의 수준에 맞춰주거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기존 운영의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단은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민간시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설 수준의 향상 및 시설의 현대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연구개발팀을 만드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업무계획을 받아보니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신

속하게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악팔각정, 마로니에공원 등 입찰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각종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악팔각정 위탁운영이 최초입찰 결과 남궁해경씨가 13억 2,120만원에 낙찰되어 '99년 3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임대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가 하면 1년도 채 안되어서 경영자가 바뀌고 또한 입찰가격이 전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입찰되었고 입찰공고도 특정 일간지 한 곳에만 공고하는 등 많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시설 임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단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구의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심한 주의와 아울러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면서 우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생활의 편리와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는 만큼 공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주시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단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1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6時20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9人

李憲九 洪起瑞 鄭泰淳 朴鍾植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千相旭
洪承台

○出席專門委員

鄭聖洙

○出席公團關係者

理事長 金誠泰
常任理事 禹濟權
企劃 팀長 李木熙
事業1팀長 李重燮
事業2팀長 柳貞先
事業3팀長 全鎔集

